

국정과제회의

반갑습니다. 신행정수도 공약해놓고 가다가 힘이 빠질까봐 걱정 많이 했습니다. 그렇다고 준비 없이 갈수도 없어서 하나하나 연구하고 준비하고 힘 모으는 작업이 잘 준비돼야합니다. 그동안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상당히 많은 연구한 걸로 생각하는데 방향을 크게 한번 보게 공유하고 다음 발걸음을 어떻게 갈지 정해야합니다.

이를 위해 애써준 김안재 신행정수도 추진 자문위원장 강용식 분과위원장에게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자리에 뜻 깊은 것은 대전 충청권 여야의원이 함께 참석해준 것입니다. 아무리 좋은 일도 뜻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앞으로 손발이 잘 맞을 것 같다는 기대 갖습니다. 지역의 단체장도 관심 가져줘서 큰 힘 된다. 이 문제가 선거 때는 여야 나뉘어 다룰 수 있지만 결국 여야나 어느 지역의 이익을 넘는 일입니다. 결과적으로 충청지역이 희망 갖게 된 건 사실이지만 충청만 위한 게 아니고 전국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 봅니다. 수도권을 위해서도 나중에 참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. 오늘 좋은 말씀 들으시고 새 방향 잡을 수 있는 좋은 자리 되길 바랍니다.